

출발 좋은 벤투호, 칠레 꺾고 2연승 간다

내일 두 번째 평가전 대결
코스타리카전 2-0 승리
상승세 이어갈지 관심



지난 7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국과 코스타리카 친선경기. 한국 남태희(8번)가 골을 성공시킨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미의 복병 칠레를 넘어 2연승 가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코스타리카와 평가전 2-0 승리의 여세를 몰아 칠레와 두 번째 대결에 나선다. 한국은 11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칠레와 친선경기를 벌인다. 벤투 감독으로서의 남미 팀과 첫 대결로 취임 후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2연승을 노릴 기회다.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신고식을 치렀던 벤투 감독은 7일 코스타리카전에서 이재성(울수타인 킬)과 남태희(알두하일)의 연속골로 승리한 후 “90분 내내 경기를 지배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수비적으로 좋았고, 공격으로 전환할 때 역습에서도 좋은 장면 많이 나왔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벤투호가 내년 1월 아시안컵을 앞두고 11월까지 상대할 여섯 팀 중에서도 우루과이 다음으로 FIFA 랭킹이 높다.

FIFA 벤투호, FIFA 랭킹 12위 칠레 상대로 2연승 노린다 랭킹 57위인 한국은 9월 코스타리카(32위), 칠레, 10월 우루과이, 파나마(69위), 11월 호주(43위), 우즈베키스탄(95위)과 차례로 맞붙는다 이번 한국과 맞대결에는 칠레의 간판 알렉시스 산체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출전하지 않는다.

대신 핵심 미드필더 아르투로 비달(바르셀로나)을 비롯해 ‘센추리클럽’에 빛나는 수비수 듀오 가리 메델(베식타스·A매치 111경기)과 마우리시오 이슬라(페네

르바체·A매치 100경기) 등이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칠레는 애초 7일 훗카이도 돔에서 일본과 평가전을 치르고 넘어야 예정이지만 훗카이도 지진 여파로 친선경기를 취소하고 한국과 맞붙게 됐다.

한국은 칠레와 역대 A매치에서 딱 한 차례 맞붙어 패한 적이 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준비하던 허정무호가 아시아 3차 예선을 앞뒀던 2008년 1월 30일 곤살로 피에로에게 결승 골을 내주고 0-1로 졌다.

이번에는 기본 좋은 승리를 경험한 ‘벤투호 1기’ 멤버들이 선배들을 대신해 칠레에 설욕할 기회다.

벤투 감독은 코스타리카전 때 월드컵에 뛰지 않았던 남태희와 지동원(아우쿠스

부르크)을 빼고는 월드컵 출전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렸고, 6명을 교체 투입하며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했다.

4-2-3-1 전형의 포백 시스템을 구사했고, 주장 임무를 맡긴 손흥민(토트넘)을 왼쪽 날개로 기용했다. 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한 황의조(갑바 오사카)와 김문환(부산), 황인범(아산)도 후반에 투입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벤투 감독이 첫 A매치 결과를 토대로 칠레전에 베스트 11을 어떻게 짤지 궁금한 이유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벤투 감독이 칠레와 평가전에서 A매치 2연승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오사카, 테니스 메이저대회 정상

US 오픈서 ‘여제’ 윌리엄스 꺾고 일본인 첫 우승

20세 신예 오사카 나옴이(19위·사진)가 일본인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리 5게임에 따내며 윌리엄스를 압도했고, 2세트에서는 게임스코어 4-3으로 오사카가 앞선 상황에서 윌리엄스가 심판에게 과도한 항의를 하면서 ‘게임 페널티’를 받아 5-3 오사카, ‘여제’ 윌리엄스 꺾고 일본인 첫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발돋움 이 경기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사카는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천300만 달러·약 590억원) 13일째 여자단식 결승에서 ‘테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26위·미국)를 2-0(6-2 6-4)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오사카는 일본인 최초, 아시아 선수로는 2011년 프랑스로프과 2014년 호주오픈 여자단식을 제패한 리나(중국)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챔피언’이 됐다. 우승상금은 380만 달러(약 42억7천만 원)다.

메이저 대회 남자단식에서는 아시아 국적 선수가 우승한 적이 없다. 남자단식 최고 성적은 2014년 US오픈 니시코리 게이(일본)의 준우승이다.

오사카는 1세트 게임스코어 0-1에서 내

면 대회에서 우승했다면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4번째 정상에 오르며 마거릿 코트(호주·은퇴)의 역대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과 동물을 이룰 수 있었으나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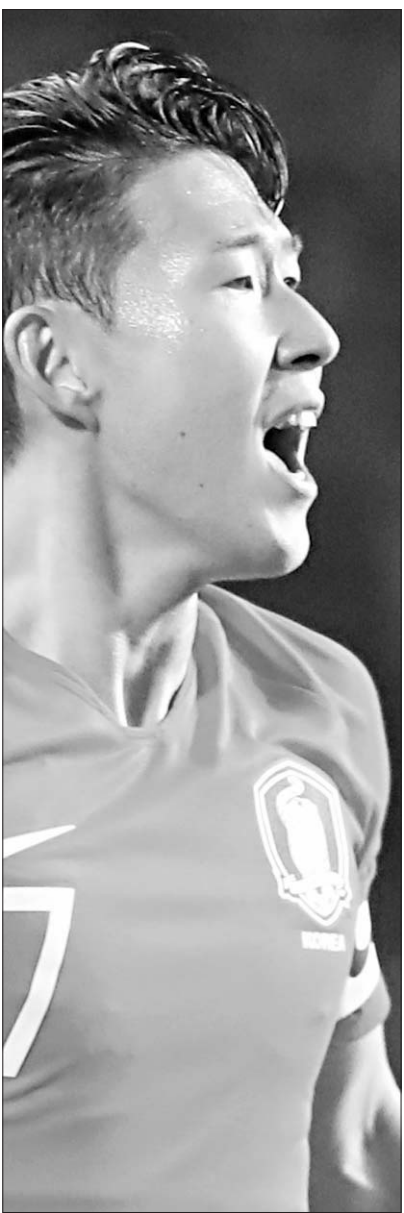
또 윌리엄스는 2011년 이후 7년 만에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이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됐다. /연합뉴스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13일째 여자단식 결승에서 오사카 나옴이 ‘테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를 2-0으로 물리치고 일본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후 포옹하는 윌리엄스(왼쪽)와 오사카. /AFP-연합뉴스

손흥민 혹사 논란... 107일 간 19경기 치러

월드컵·아시안게임 혹독한 출전... 소속팀 복귀 후 더 큰 문제



한국 축구대표팀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을 둘러싼 혹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신은 손흥민이 최근 너무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국 축구사이트 90min은 지난 8일(한국시간) “손흥민에게 휴식을 줘야 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영국 현지 팬들의 여론을 소개했고, 골닷컴 스페인은 9일 “손흥민이 러시아월드컵부터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라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부터 시작된 손흥민의 긴 여정을 소개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7-2018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5월 13일 레스터시티전을 소화한 뒤 곧바로 귀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해 2018 러시아월드컵 준비에 들어갔다.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입소해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한 손흥민은 28일 대구에서 열린 온두라스전에서 79분을 뛰었고, 6월 1일 전주에서 열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월드컵 국내 출정식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손흥민의 여정은 계속됐다. 월드컵 사전 캠프지인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훈련을 하다 7일 현지에서 불리비아, 11일 세네갈과 평가전에 출전했다.

그리고 러시아로 이동해 18일 월드컵 조별리그 스웨덴, 23일 멕시코, 27일 독일전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월드컵을 마친 손흥민은 한국으로 귀국해 고작 20여 일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영국으로 돌아가 팀 훈련과 연습경기를 치렀다. 그리고 2018 인터내셔널 챔피언스(CIC)컵 출전 차 미국으로 이동했다.

숨 막히는 일정은 계속됐다. 그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도네시아로 이동, 17일 말레이시아, 20일 키르기스스탄, 23일 이란, 27일 우즈베키스탄, 29일 베트남, 9월 1일 일본전에 나서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손흥민은 곧바로 파주NFC로 들어가 파울루 벤투 신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주장 완장을 차고 7일 코스타리카와 친선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는 오는 11일 수원에서 칠레와 친선경기에도 나서야

한다. 손흥민은 칠레전에 출전하면 지난 5월 28일 온두라스전부터 107일 동안 19경기를 소화하게 된다.

손흥민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영국→한국→오스트리아→러시아→한국→영국→미국→영국→인도네시아→한국→영국으로 이동하는 살인적인 이동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도 열악한 이동 환경으로 속앓이를 했다.

더 큰 문제는 11일 칠레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다는 점이다. 손흥민은 A매치 기간이 끝나면 소속팀으로 복귀하는데, 그의 앞엔 ‘지옥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소속팀 토트넘은 15일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전, 19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인터밀란전, 23일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 호브 엘비언전, 27일 리그컵 왓퍼드전, 29일 프리미어리그 허더즈필드전을 치른다.

손흥민을 두고 혹사 논란이 나올만하다. /연합뉴스

추신수, 오클랜드전 2안타 1볼넷

세 차례 출루... 타율 0.273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안타 2개와 볼넷 1개로 세 차례 출루에 성공했다.

추신수는 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클랜드-알라메다 카운티 콜리시엄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방문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

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2에서 0.273(512타수 140안타)으로 올랐다.

1회초 타석부터 선구안이 빛났다. 오클랜드 선발 에드윈 잭슨과 상대한 추신수는 공 5개를 지켜봐 볼넷으로 1루를 밟았다.

1-2로 끌려가던 3회초 무사 1루에서는 좌익수 쪽 안타를 터트린 뒤 폭투 때 2루

를 밟았다.

이어 2사 2, 3루에서 터진 노마 마자라의 2루타 때 홈을 밟아 시즌 79번째 득점을 올렸다.

5회초에는 바뀐 투수 코리 기어린을 상대로 내야 안타를 때린 뒤 루그네드 오도어의 2루타 때 3루에 진루했지만, 마자라의 내야 땅볼 때 홈에서 아웃돼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추신수는 7회초 내야 땅볼, 9회초 유격수 직선타로 물러났다.

텍사스는 오클랜드에 6-8로 역전패를 당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머



물렀다. 텍사스 4번 타자 아드리안 벨트레는 시즌 11호와 12호 홈런을 연거푸 터트렸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오클랜드의 크리스 데이비스는 1회말 시즌 41호 2점 홈런을 터뜨려 아메리칸리그 홈런 선두를 질주했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227-0000

전남체육중·고,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 선전

금 10, 은 2, 동 4개 획득... 중등부 종합우승, 윤지원 최우수상

전남체육중·고등학교 레슬링팀이 최근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선전했다

고 9일 밝혔다.

전남체육회에 따르면 전남체육중·고 레슬링팀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강원 평창에서 열린 제4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 총 1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중등부 60kg급 윤지원과 92kg급 정유성은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에서 모두 금메달을 거머쥐며 2관왕을 달성하며 체급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55kg급 나홍민과 45kg급 유승현은 각각 자유형에서 금메달, 그레코로만형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55kg급 김민성도 그레코로만형에서 금메달, 자유형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79kg급 김현빈은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 모두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고등부에서는 53kg급 나홍길, 57kg급 박수열, 76kg급 박진협이 각각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97kg급 김희준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중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전남체육중은 2관왕을 차지한 60kg급 윤지원이 중등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박민진 지도자가 우수지도자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55kg급 나홍민과 45kg급 유승현은 각각 자유형에서 금메달, 그레코로만형에서 /조상기 기자 gie9928@